

경쟁적 우위

캐나다는 기업에 대해 개방적이며 외국인 투자를 환영합니다.

- 포브스지 및 블룸버그지에 따르면 캐나다는 G-20 중 기업을 운영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.
-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(EIU)은 캐나다가 G-20 중 2016~2020년(5년) 동안 기업을 운영하기에 가장 좋은 국가라고 언급하였습니다.
- 세계은행에 따르면 캐나다는 G-7 중 가장 창업하기 쉬운 국가입니다.
- 캐나다는 2010~2014년에 G-7 중 1인당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가장 많았던 국가입니다.
- 캐나다의 기업 투자 증가는 2008~2009년의 경기침체 이후 현재까지 G-7 중 가장 높았습니다.

캐나다는 기업의 혁신·성장·성공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경제를 갖추고 있습니다.

- 캐나다는 지난 10년간(2005~2014) 경제성장에서 모든 G-7 국가들 중 선두를 유지하였습니다.
- 캐나다는 2005~2014년에 G-7 중에서 가장 높은 고용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.
- 캐나다의 경제는 경기침체에 줄어들었던 생산량과 일자리를 모두 복구하고도 남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.
- 캐나다에서는 경기침체가 막을 내린 2009년 6월 이후 1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. 이것은 8.0% 이상의 성장으로서, 새로운 일자리의 80% 이상이 민간부문 및 전일제 일자리였습니다.

캐나다의 재정적 견고성으로 인해 기업 운영의 확실성이 확보됩니다.

- 국제통화기금(IMF)에 따르면 캐나다는 현재 G-7 중 국내총생산(GDP) 대비 순부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.
- 캐나다의 재정적 견고성은 스탠더드 앤 푸어스, 무디스, 피치가 신용등급 AAA를 부여했다는 사실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.

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금융부문은 캐나다 경제의 견고성을 더욱 높여줍니다.

- 세계경제포럼(WEF)은 캐나다가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건실한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
- 글로벌 파이낸스지가 선정한 북미에서 가장 안전한 10대 은행에 캐나다의 주요 은행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캐나다는 저비용·저과세 환경을 제공합니다.

- KPMG의 '2014년 경쟁력 대안 보고서(2016 Competitive Alternatives Report)'에 따르면, 캐나다의 전반적 기업 비용은 G-7에서 가장 낮으며, 미국보다 14.6% 낮습니다.
- KPMG의 '2014년 세금 보고서(Focus on Tax 2014)'에서도 캐나다가 G-7 중 세금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- 캐나다는 기계, 설비, 산업 투입요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2015년에 0%가 되도록 함으로써 G-20 국가들 중 제조업체들에게 최초의 관세자유지역이 되었습니다.
- 2015년 캐나다의 연방·주 종합 법인세율(26.3%)은 다른 대부분의 G-7 국가들보다 낮으며, 미국보다 약 13퍼센티지 포인트 낮습니다.

캐나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용 효과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.

- 캐나다는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개발 지출이 G-7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.
- 캐나다는 G-7 중 기업에 대해 가장 우수한 연구개발 세금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, 세금 혜택 적격 여부의 확실성이 높고 행정 비용 또한 낮습니다.
- 캐나다의 연구개발 집약 부문들은 G-7 중 가장 낮은 비용 혜택을 누리며, KPMG의 '2016년 경쟁력 대안 보고서'에 따르면 이것은 미국보다 27.7% 더 낮은 것입니다.

캐나다는 높은 교육 수준과 경쟁력을 갖춘 노동력을 기업에 제공합니다.

- 25~64세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등교육을 받은 캐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들 중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인재들을 기업에 제공합니다.
- 세계경제포럼(WEF)의 2015년 인적자본지수에 따르면 캐나다는 G-20 중 양질의 인력에 대한 기업의 니즈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나라입니다.
- 캐나다인들은 5명 중 1명이 캐나다 공식 언어인 영어나 불어 이외에도 200개가 넘는 언어 중 하나를 구사할 정도로 언어적으로 다양합니다.

캐나다는 살기 좋고 번창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.

- 세계은행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은 1인당 GDP 기준으로 G-7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생활수준을 누립니다.
- OECD의 '더 나은 삶의 지수(Better Life Index)'에 따르면 주택, 소득, 고용, 환경, 교육, 건강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캐나다는 전반적 생활 여건과 삶의 질에서 G-7 중 으뜸입니다.
- 헤리티지 재단(Heritage Foundation)에 따르면 캐나다는 번영하는 사회를 위한 경제적 자유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G-7 중 1위입니다.

캐나다는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.

- 캐나다 20대 도시 중 16개가 캐나다-미국 국경에서 차로 9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, 매일 캐나다-미국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미화 20억 달러 이상의 교역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.
- 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 회원국 지위로 인해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4억8천만 명의 소비자를 기반으로 한 미화 20조 달러 이상(GDP)의 북미 시장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.
- 캐나다-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(CETA)이 발효되면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EU 및 북미 시장에 대한 우선적 접근이 보장되며, 이것은 거의 10억 명의 소비자와 미화 39조 달러의 통합 GDP 또는 세계 재화 및 용역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장입니다.
- 캐나다는 수출 관련 세금 및 관세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외국자유무역지역(FTZ)에서 제공되는 기업 혜택과 맞먹으면서도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기업에 제공합니다.



@invest_canada 님 팔로우하기

더 자세히 알아보기: www.investincanada.com